

‘JUMF2025’ 국내외 아티스트 총출동

전북대 대운동장서 8월 15~17일 개최

JUMF2025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더욱 뜨거운 여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2차 라인업은 JUMF가 지닌 장르적 다양성과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YB, NELL, FT아일랜드, 데이브레이크, 페퍼톤스, LUCY 등 K-밴드 씬의 중심에 있는 팀들이 무대에 선다. 또한 세계적인 파워메탈 밴드 DragonForce가 국내 첫 내한을 한다. 일본의 NEMOPHILA, SEX MACHINEGUNS, ZIGGY(M.J.), 세르비아 출신 JELUSICK까지 참여하면서 해외 팬층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 외에도 독보적인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인 이송운, 노라조, 감꽃들, 세이수미, TIOT, 캐치더영, 조지, 폴킴 등이 JUMF 무대의 온도를 끌어올릴 예정이며, 로큰롤러디오, 브로큰발렌타인, DMOT, 오프더메뉴, 불고기디스코, 하이파이유니콘, 중식이밴드 등 라이브씬의 강자들도 대거 합류한다. 여기에 비트박스 챔피언 WING이 속한 비트

펠라하우스, 그리고 행로난, 화노, 두역시니, STORM, SUNNYKEY 등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예들이 다채로운 음악적 실험을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 2차 라인업까지만 공개된 상태다. 특히 JUMF는 도심형 페스티벌의 장점을 극대화 해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 8월 15~17일 3일간 열린다. 타지역 관객을 위한 셔틀버스 노선이 마련되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또한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조기에매 할인, 전북·광주은행 카드할인, 청소년 할인, 지역민 할인, 3일권 패키지 할인 등 다양한 티켓 할인 정책을 운영 중이다. 공식 예매처(NAVER, NOL ticket, Melon)를 통해 확인 및 구매가 가능하다. 이태동 총감독은 “1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JUMF는 지역의 페스티벌을 넘어, 음악과 도시가 만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왔다”며 “올해는 가장 폭넓은 라인업, 가장 뜨거운 3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JUMF2025 메인포스터
비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 출신 강용면 작가가 18일 무주군 최북미술관에 조각작품 1점을 기증했다.

전북 출신 강용면 작가, 조각작품 기증

무주 최북미술관에 ‘온고지신-부귀’… 기획전시·작품 연구 활용 예정

전북 출신 강용면 작가가 18일 무주군 최북미술관에 조각작품 1점을 기증했다. 이날 기증한 ‘온고지신-부귀’는 한국 전통을 재해석한 입체 작품(높이 173cm X 가로 137cm X 세로 53cm / 무게 10kg)으로, 최북미술관 기획전시 및 작품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강용면 작가는 “올해 초 최북미술관 기획 전시에 참여하면서 맺은 무주와의 인연이 작품 기증으로 이어지게 돼 기쁘다”라며 “정성을 다해 조각한 ‘온고지신-부귀’가 무주에 좋은 기운을 불어넣고 무주의 아름다움을 배가시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황인홍 무주군수는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해주시는 작가님께 경의를 표한다”라며 “작가님의 혼이 담긴 ‘온고지신-부귀’가 반딧불이의 고장 자연특별시 무주를 더욱 빛나게 해주리

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강용면 작가를 비롯한 주민 등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강용면 작가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한편, 조선대와 호남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용면 작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북미술관 기획전 ‘얼굴-내면의 형상’에 참여했으며, 설치작품 3점, 조각작품 3점을 선보였다. 1982년부터 미술대전특선 2회, 입선 5회를 비롯해 중앙미술대전 우수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작품을 제1회 한국일보 청년작가대전 수상기념전, 강용면 자화미술관전 등 개인전에 12회, 화랑미술제 코엑스전 등 단체전에 16회 전시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 광활 간척지의 역사, 무대 위에 펼쳐지다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갯들 아리랑’ 개막… 10회 상연

일제강점기 김제 광활 간척지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조명하는 전통예술 상설공연 ‘갯들 아리랑’이 지난 14일 김제향교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공연은 ‘2025년 전통예술지역브랜드 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주최하고, (사)한국예총 김제시지회와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한다. ‘갯들 아리랑’은 광활 평야를 개간하기 위해 갯벌과 싸운 서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야기를 중심으로 주인공 ‘광천’과 마을 주민들의 투쟁과 희생, 사랑과 공동체의 연대를 그린 창작극이다. 마당극, 무용, 국악 등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총 60분 분량의 공연은 김제향교라는



일제강점기 김제 광활 간척지의 역사와 민중의 삶을 조명하는 전통예술 상설공연 ‘갯들 아리랑’이 지난 14일 김제향교에서 막을 올렸다.

전통적인 공간에서 총 10회에 걸쳐 상연된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무대 재현을 넘어 김제라는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문화콘텐츠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관람료

수익을 관람객 대상 공연 이벤트 형식으로 재투자하는 구조를 갖추어 공연 예술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민 환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실현하고자 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성인 대상 ‘박물관 인문학’ 강좌 진행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은 성인 대상 문화 강좌 〈박물관 인문학〉 ‘시간을 함께한, 기록’을 개설,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총 5회로 이뤄진 강좌 중 첫 강의로 오랜 기간 조선시대 활자과 출판 문화에 대해 연구해 온 이재정 학예연구관(前 국립전주박물관)이 오는

25일 ‘기록의 방법, 활자’를 소개할 예정이다. 〈박물관 인문학〉은 국립전주박물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인문학 강좌 프로그램이다. 올해 주제는 ‘기록문화’로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 삶 속에 함께하고 있는 기록문화를 발견하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강좌는 6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 진행된다. 6월과 7월 강좌는 대중 강연으로 예약 없이 현장 참여가 가능하며, 8월, 9월, 10월의 체험강좌는 6월과 7월 수강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 주요 역사박물관, 야간 무료 개관 운영

군산근대역사박물관·군대미술관(구 18은행)·군대건축관(구 조선은행) 등 군산의 주요 역사박물관들이 야간에 무료로 박물관을 개방한다. 개관 일시는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이 열리는 20일~22일까지로 무료관람은 저녁 6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운영시간도 저녁 9시까지 확대된다. 이번 야간 무료 개관은 ‘제4회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기간에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이번 야간 무료 관람에 앞서 토요일, 일요일 매월 3회씩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한 주말 상설 행사를 진행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4회 군산 수제맥주 & 블루스 페스티벌’ 중



인 21일에는 오후 2시와 3시 두 차례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에서 연극공연이 관람객을 맞는다. 22일에는 박물관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우리의 전통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투호놀이, 제기차기, 비석치기, 전래동화, 딱지 만들기 등 다양한 놀이를 보고 체험할 수 있다. 단, 폭염이나 비가 오는 경우 박물관 1층으로 이동해 진행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